

● 치협, '장애인에게 환한 웃음을' 구강건강 캠페인 실시



치협은 지난 6월 1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공동캠페인 선언식과 조인식을 갖고 '장애인에게 환한 웃음을'을 주제로 장애인 구강건강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치협과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는 장애인이 치아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장애인 구강건강 문제와 치과 치료의 필요성을 알려 장애인의 현실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스포츠서울에 연재되고 있는 만화 '옹하다 옹해 무대리'의 작가 강주배씨가 도안한 캐릭터가 발표됐으며 이번 공동 캠페인에는 텔런트 박상원씨가 홍보 사절로 임명됐다.

●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6월 16일 오후 프라자호텔에서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玄琪鎔(현기웅)보험이사, 양정강 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의 건강보험대행청구가 합법화 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은 대행청구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원하는 지부의 신청을 구 지역 단위로 접수받아 지리적, 환경적 요인 등 제반여건을 평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지역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특히 통합진찰료와 관련, 치협은 치과처방률 산정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후 복지부와 고시 전까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임원연수회 및 정기이사회 개최

치협은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제주 크라운호텔에서 정기이사회 및 임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치협은 전국 11개 치대 입학정원을 각 치대마다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것을 치대 정원 감축 치협안으로 확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세부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치협 비상대책기구 운영 및 조직도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내년 4월 아·태총회기간 중 열리는 치협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점수는 6점을 부여키로 했다.

치협 비상대책기구 조직안과 관련 명칭은 비상대책중앙위원회로 하고 비상대책중앙위 위원장은 협회장이 맡으며, 비상대책 중앙위 산하에 회원동원을 담당하는 조직위원회를 두되 조직위 위원장은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이 맡는 것으로 했다.

비상대책 중앙위원회는 치협임원, 대의원총회 의장단, 시도 지부장, 한국치정회 회장, 치대학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포함되게 된다. 비상대책중앙위원회는 치협 정관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